

한국축구, 아시안컵 정상 해법 찾는다

조광래호 오늘밤 이란상대 아시안컵 대비 모의고사

해외파 풀가동...‘박주영-이청용’ 투톱 시험무대



아직도 최종예선 8차전에서도 1-1로 승부를 내지 못하는 등 월드컵 최종예선 2경기는 모두 비겼다.

이란도 아시안컵에 대비해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에서 활약한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가동시킬 방침이어서 전력 점검을 위한 상대로 손색이 없다.

압신 고토비(46) 이란 대표팀 감독은 남아공 월드컵 지역 최종예선 8차전에서 한국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은 주축 공격수 미수도 주자이에(오사수나)와 미드필더 안드리 니크루미루안(반발리), 최근 부상에서 회복한 미드필더 모함마드 레자 칼라트바리(조브 아한) 등을 두루 불러모았다.

이에 맞서는 한국 대표팀 역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박주영(모나코), 이청용(볼顿) 등 해외파를 비롯해 정예 멤버를 풀가동한다.

사령탑 데뷔전인 지난달 11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을 2-1 승리로 이끌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향한 장로에 기분 좋은 첫걸음을 내디딘 조광래 감독이 이청용 투입으로 변화를 준 공격진을 어떻게 지휘할지가 관심거리다.

박주영과 이청용, 박지성을 내세운 3-4-3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상황에 따라 박주영-이청용이 투톱 헤딩을 맞추고 박지성이 뒤

이란 평가전 예상 선발라인업
7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KBS2 생중계)



를 받치는 3-4-1-2 전술 전형을 훈용한다. 좌우 날개를 맡은 박지성과 이청용의 유기적인 위치 변환을 강조한 전술이다.

중앙 미드필더는 기성용(셀틱)과 나이지리아에서 데뷔골을 비롯한 윤빛가람(경남)이 나서고 좌우 윙백에는 이영표(알힐랄)와 차두리(셀틱)를 세운다. 스리백은 이정수(알 사드)-조용형(알리아인)-김영원(FC 도쿄)이 맡고 정성룡(성남)이 골문을 지킬 전망이다.

후반전은 ‘2기 조광래호’의 새로운 활태자 등극을 노리는 신예들이 투입될 전망이다. 조 감독이 차세대 스트라이커 재목이라고 칭찬한 석현준(19·아약스)과 수비라인에서 ‘깜짝 발탁’된 김주영(경남) 등 A대표팀 새내기들이 이란전에서 데뷔할 경우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6일 강원 태백시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제3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 대항 체조대회 및 2010년도 전국 대학·일반 체조 선수대회 남대부 단체종합경기에서 경희대 김상우가 링 경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광래식 토템사기’로 성공적으로 변신 중인 축구대표팀이 내년 1월 아시안컵에 앞서 이란을 상대로 ‘중동 모의고사’를 치른다.

조광래(56)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7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E1조청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에서 중동의 강호 이란과 맞붙는다. 이번 경기는 2011년 아시안컵에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조광래호’가 51년 만의 우승컵을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다.

이란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5위로 한국(44위)보다 아래지만 만날 때마다 늘 한국을 꾀죄는 까다로운 상대로 한국에게는 아시안컵에 대비한 ‘맞춤형’ 중동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전적에서는 8승7무8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지난해 6월 남아공 월드컵 아시

2골 여민지 ‘제2의 지소연’ 예감



U-17 여자월드컵 남아공에 3대 1 승

‘태극소녀’들이 2010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2골을 터트린 여민지(17·함안대신고)의 활약은 앞세워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꺾고 역대 남녀 대표팀을 통틀어 FIFA 주관 대회 사상 첫 우승을 향한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한국은 6일(한국시간) 오전 트리니다드 토바고 스카버러의 드레이트 요크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대회 B조 1차전에서 여민지가 선제골과 결승골을 터트리고 신답영(동부여고)이 헤딩 채기골을 넣으며 3-1로 이겼다.

대표팀은 경기 초반 조작력이 살아나지 못한 상태에서 남아공에 페널티킥을 내주며 첫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마풀라 크고알라의 숏이 크로스바를 허적 넘자 ‘태극소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 수 있었다.

조처럼 골 상황을 만들지 못하자 최덕주 감독은 전반 26분 벤치에 있던 여민지를 내보내 분위기 전환을 노렸고, 여민지의 ‘교체카드’는 적중했다.

전반 36분 김다혜가 왼쪽 측면을 끊고 크로스를 내주자 쇄도하던 여민지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슛을 시도한 게 크로스바를 강하게 때리고 튀어나왔다.

흘러나온 볼을 잡은 주장 김아름(포항여자고)이 다시 크로스를 올렸고, 남아공 수비수들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려고 주춤하는 사이 여민지가 뛰어나와 볼을 잡고 골키퍼와 맞선 상황에서 침착하게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뽑으며 전반을 마쳤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후반 32분 수비수 신답영의 헤딩슛으로 3-1 승리를 완성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한국과 나란히 1승을 거뒀지만 골득실에서 앞서며 독일이 B조 선두로 나섰다.

/연합뉴스

조처럼 골 상황을 만들지 못하자 최덕주 감독은 전반 26분 벤치에 있던 여민지를 내보내 분위기 전환을 노렸고, 여민지의 ‘교체카드’는 적중했다.

전반 36분 김다혜가 왼쪽 측면을 끊고 크로스를 내주자 쇄도하던 여민지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슛을 시도한 게 크로스바를 강하게 때리고 튀어나왔다.

흘러나온 볼을 잡은 주장 김아름(포항여자고)이 다시 크로스를 올렸고, 남아공 수비수들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려고 주춤하는 사이 여민지가 뛰어나와 볼을 잡고 골키퍼와 맞선 상황에서 침착하게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뽑으며 전반을 마쳤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후반 32분 수비수 신답영의 헤딩슛으로 3-1 승리를 완성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한국과 나란히 1승을 거뒀지만 골득실에서 앞서며 독일이 B조 선두로 나섰다.

/연합뉴스

이세돌 9단 7개월 연속 한국랭킹 1위



바둑계의 ‘쎈돌’ 천하가 9월에도 이어졌다.

6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프로기사 9월 랭킹에서 이세돌 9단은 9

천730을 얻어 2위 이창호 9단을

83점차로 제치고

1위를 지켰다.

이세돌은 8월 한달동안 원성진 9단을 이기고 물가정보배 결승전출에 성공했으며 강지성 8단을 물리치며 국수전 8강에도 올랐다.

그러나 한국리그에서 랭킹 40위의 이태현 3단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하는 등 총 3승2패를 기록, 지난달 보다 31점을 떨어졌다. 그럼에도 이세돌은 2위권과의 점수 차가 위낙 커 7개월째 자리를 지키는데 성공했다.

이세돌의 이번 1위는 프로기사 랭킹제가 시행된 2005년 8월 이후 38번째 기록이다.

2위는 이창호 9단이 차지했다. 이창호는 물가정보배 준결승에서 최철한 9단을, 명인전 결선전출이 걸린 본선동률을 대체국에서 이세돌 9단을 이기는 등 지난달 5전 전승을 거두며 랭킹 포인트를 60점 끌어올리며 9천 647점을 얻었다.

1위 탈환에는 실패했지만 8월랭킹에서 174점까지 벌어졌던 이세돌과의 점수차를 절반가량 좁히는 성공했고 7월랭킹 공동 3위, 지난달 공동 2위로 끌어올리며 9천 647점을 얻었다.

최철한은 8월 한달 동안 6승1패의 호조를 보이며 9천267점으로 40점을 끌어올렸으나 이창호에 밀리며 3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한국리그에서 랭킹 40위의 이태현 3단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하는 등 총 3승2패를 기록, 지난달 보다 31점을 떨어졌다. 그럼에도 이세돌은 2위권과의 점수 차가 위낙 커 7개월째 자리를 지키는데 성공했다.

여류기사증에서는 루이아이웨이 9단이 전체 64위로 박지수 9단(68위), 조혜연 8단(76위)을 누르고 3달째 여류랭킹 1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위창수의 추격

도이체방크 선두와 5타차 6위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에서 선전을 이어갔다.

위창수는 6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노턴의 보스턴TPC(파71.7702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골라내는 깔끔한 경기를 펼치며 중간

2위를 차지했다. 6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프로기사 9월 랭킹에서 이세돌 9단은 9

천730을 얻어 2위 이창호 9단을

83점차로 제치고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2차 시민주 공모

광주시 30일까지

올해 말 창단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민 프로축구단’의 창단 자금 마련을 위해 광주시가오는 30일까지 2차 시민주 공모에 나선다.

6일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실시하는

제2차 시민주 공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 경제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을 방문해 흥행기사 ‘단체의 날’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며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주주가 되면 내년 개막 무료입장, 시즌 흥행기 50% 할인,

제휴업체 물품 할인 구매 등과 함께 10만 원 이상 주식 매입 시민에게 경기장 티켓 지정석 운영, 1000만 원 이상 개인 및 법인 경기장 VIP룸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흥행기사 ‘후원기업 또는 기관·단체의 날’ 흥보 이벤트도 제공된다.

광주시는 지난 1차 시민주 공모에서 10억 5500만 원의 청약 실적을 올렸으며, 광주은행 모든 지점과 인터넷(www.kjbank.com)으로 진행되는 2차 시민주 공모를 통해 모두 100억 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광주의 강남!

The S 더실아파트

25% 파격 할인!!
최대 1억 2천만 원 할인!!

대출 물건 최다 보유!

44py 54py 65py

공동증개 문의환경!!

봉선동 더실 흰물건 전문 공동증개사무소

제석공인중개사

분양문의 062)673-3100

주식회사 분할 및 주권제출 공고

2010년 9월 6일 입시주주총회에서 본 회사 앰스간설 주식회사의 일부(휴게사업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새로 앰스 주식회사(각자)를 설립하기로 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계재일より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7일

엠에스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 283
대표이사 김 해 명

자본 감소 공고

본 회사는 2010년 9월 6일 입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본의 총액 금 150,000,000원(원)의 “(주)상진주택”과 “(주)상진시화”(이하 “상진주택”과 “상진시화”로 각각 부른다)를 분할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10,000원으로 매수하여 유상소각하여 일정주식 15,000주를 9,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회사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계재일より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아래에 정한 바와 같이 공고한 바와 같이 제출할 것을 당부합니다.

2010년 9월 7일

주식회사 투어라이프
광주 서구 매월동 946 자동차부품상가 201-205
공동대표이사 조 철 환
공동대표이사 안재 일

분할 합병 공고

(주)상진주택(“상”)과 (주)상진시화(“상”)는 서기 2010년 9월 6일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상”과 “상진시화”의 각 전기(2010년 6월 30일 기준)의 “상”과 “상진시화”의 각 전기(20